

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강문화 진정내용 처리는 음박대편 〇五一一(二〇〇五)一十「세강문화 진정내용 수용보고서」로 마무리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후손들이 위선사업(爲先事業)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六十四개 항목에 달하는 업적을 이루었으니 실로 커다란 자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정리하고 자료를 제출한 소속 증친회장님들과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족보발전자에 포함된 一九〇三년 및 一九三八년 족보는 과보이나 참조 및 기록보존을 위해 추가였습니다. 그리고 증친회별 색인부를 마련함은 물론 후손들이 족보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증친회별로 공통사항은 각각 수록하여 편리성을 제공하였고 기타 용어 등 개선할 것은 개선하였음을 참언합니다.

이번 족보편찬은 후손들이 한글세대임으로 읽힐 수 있는 족보를 편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시인하면서 다음에 부기한 음성박씨 경진보 족보편찬 요강에 주하여 편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음성박씨 경진보 편찬요강을 마련, 편찬의 틀을 제공한 초기 편찬위원장님 및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二〇〇五년 五月

음성박씨 족보편찬위원회 총무 〇〇삼가 씀

편찬업무기

一九九九년말 ○○○씨 족보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二〇〇一년말 까지 족보를 발간토록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였음에도 五년의 장우한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의 숙원사업인 족보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간되어 늦게나마 안도와 축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족보가 늦어진 이유가 어떠한 족보편찬 및 발간의 책임을 맡은 위원장이 하회장단은 백배 돈수하옵고 전 일가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족보의 지연사유를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정승공파 종친회 세가문화 전 직계자손의 진정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진정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一차 교정본이 나온 뒤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첫 번째 지연 이유는 제3자의 사전인 이견에 의하여 지연되었고 두 번째로 종친회 공식의견을 무시하고 대종회의 공식협의를 배제한 대종회 실무자의 독단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실무자는 편찬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종회 특별감사와 회장단의 결단에 따라 족보편찬위원장과 총무가 새로 선출되어 편찬업무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의 숙원사업인 족보발간이 늦게나마 이